

‘經濟’의 의미 개신

宋敏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오늘날의 국가 경영이나 개인 생활에서 하루라도 빼놓고는 살 수 없는 핵심 단어를 하나 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경제(經濟)’라는 한자어일 것이다. 그만큼 ‘경제’라는 전문 용어는 우리의 주변에서 매일처럼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단어가 국어에서 현재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개화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제’라는 한자어가 사전에 나타나는 시기는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한불증언』(1880)이나 『한영증언』(1897)에는 나타나지 않던 ‘경제’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1920)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그 뜻은 ‘國を治め民を濟ふこと(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일)’로 풀이되어 있어, 현대 국어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정치(政治) 일반’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의 고전적, 전통적인 의미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다.

지금은 전하지 않으나 정도전, 조준 등은 1397년(태조 6)에 『경제육전(經濟六典)』이라는 법전을 편찬하였다. 1388년(고려 우왕 14)년부터 1396년(조선 태조 5)까지의 법령과 조례를 모아 육전(六典)의 형식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이었으며, 그 후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바탕이 된 책이다. 이와는 따로 정도전은 1395년(태조 4)에 『경제문감(經濟文鑑)』이란 책

을 짓기도 하였다. 나라를 경영하는 제도에 대하여 기술한 책으로 『삼봉집(三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오늘날과는 달리 ‘정치 일반’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그러나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1957)에 이르면 ‘경제’가 드디어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제(經濟) ①<<경>> 넓은 뜻으로는 사람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財物)을 얻어 이용하는 일체의 활동. 좁은 뜻으로는 상품생산(商品生産)이 지배적인 사회에 있어서 인간이 그들의 물질적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사이에 결연(結連)되는 여러 가지 생산 관계 ②비용의 절약(節約) ③“경제제민(經世濟民)”의 준말

이로써 ‘경제’라는 한자어는 의미의 개신을 거쳐 현대 국어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뜻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첫째는 전문 용어로서의 ‘경제 활동’이며, 그 둘째는 ‘절약’, 그 셋째는 ‘경제제민’의 준말이다. 이를 총독부의 『조선어사전』과 비교하면 그 동안 의미의 개신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곧 ‘경제제민’이라는 고전적, 전통적 의미가 부수적, 역사적 의미로 물러나고, ‘경제 활동’이라는 전문적 의미가 오히려 기본 의미로 올라선 것이다.

‘경제’가 이러한 현대적 의미로 실제 문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개화기의 교과서에서 그러한 용례를 찾을 수 있다. 휘문의숙(徽文義塾) 편집부(編輯部)에서 편찬한 『중등수신교과서(中等修身教科書)』(1908)의 용례를 들어본다.

故로 今日社會에 在호야는 一, 職業에 從事호는 者가 皆, 間接으로 社會의 全體에 關係되야 暗暗中에 協同의 生活을 計함은 社會經濟上에 自然호 事이니라(권2, 協力)

現今은 各國이 皆 經濟上 利益을 供圖호야 國産을 發達호며 國富를 增加호므로 爲主호는 故로 廣히 世界列強과 商業을 交通호야 權利를 保有호기에 注意호느니(권4, 通商)

이때의 ‘社會經濟上’이나 ‘經濟上’ 속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경제’의 의미는 분명히 『큰사전』 ①과 같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그 의미가 현대 국어와 같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의미는 이종극(李鍾極)의 『선화양인(鮮和兩引) 모던조선외래어사전(朝鮮外來語辭典)』(한성도서주식회사, 1937)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에코노미(economy) (1) 儉約, 節約, 經濟 (2) (國家·社會의) 經濟, 理財, 財政/에코노믹(economic) 經濟學的, 經濟的, 財貨上의/에코노믹스(economics) 經濟學, 財政學/에코노미스트(economist) 經濟學者, 經濟家

이처럼 국어에서는 ‘경제’라는 단어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새로운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경제’는 일본어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엽에 간행된 사전류의 economy에 대한 풀이 속에 ‘경제(經濟)’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Economy, n. *kenyaku*(c); political —, *keizai-gaku*(c)(Satow 1876) /Economy, n. *kenyaku*(c); *sekken*(c); political —, *keizai-gaku*(c)

(Satow 1879) *(c)는 Chinese origin을 나타냄

Keizai ケイザイ 經濟 n. Fiscal, or financial matters : — *gaku*, political economy/Economy, n. *Kenyaku*, *kanryaku*, *shimatsu*, *sekken*. Political —, *keizai-gaku*, *risai-gaku*(Hepburn 1886)

Economy 節儉, 法度, 形器造構, 經濟(棚橋一郎 1886)

Economy 家政, 家政ヲ齊フ道, 經濟, 理財; 法度, 法則, 功用; 節儉, 節用(島田豊 1888)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conomy에 대한 번역어 속에는 ‘경제(經濟)’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Satow(1876, 1879)와 Hepburn(1886)에는 political economy에 대한 번역어로서 ‘경제학(經濟學, *keizai-gaku*)’이 나

타난다. 요컨대 일본어에서는 ‘경제’라는 단어가 18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쳐 이미 새로운 의미로 굳어져 있었다(進藤咲子 1981:68-71, 佐藤喜代治 1983 II:1-4, 佐藤亨 1986:322 이하, 惣郷正明 외 1986:129-132 등 참조).

그런데 ‘경제’라는 어형의 기원은 멀리 중국의 고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經濟 jingjì ①在歷史上一定時期的社會生產關係的總和. ②國民經濟的泛稱. [源] 日 經濟 keizai ≪〈古代漢語『宋史·王安石傳』‘朱熹嘗論安石, 以文章節行高一世, 而尤以道德經濟爲己任.’ 意譯英語 economy, economics〉〉(劉正埏 외 1984 : 163) *원문은 簡體字 표기임

economy keizai 經濟 jingji 一. ≪晉書：殷浩傳〉：「足下沈識淹長, 思綜通練, 起而明之, 足以經濟」又見唐李白 ≪贈別舍人弟臺卿之江南〉詩：「令弟經濟士, 謫居我何傷」, 謂經世濟民. 二. 清孔尚任 ≪桃花扇：修札〉：「寫的激切婉轉, 有情有理, 叫他不好不依, 又不敢不依, 足見世兄經濟」, 指治國的才幹(Liu 1995 : 315)

결국 중국의 고전에서 ‘경제제민(經世濟民)’이나 ‘치국(治國)의 재간(才幹)’이란 뜻으로 쓰여온 ‘경제’가 일본어에서는 서양어 political economy, economy, economics에 대한 번역어로 전용되면서 의미의 개신을 일으켰고, 그것이 다시 중국어에 차용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가 현대적 의미로 중국어에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90년대 후반인데, 거기에는 양계초(梁啓超)나 강유위(康有爲)의 역할이 컸다. 1896년 양계초는 ‘경제(經濟)’를 일본어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으며, 1898년 강유위는 북경에서 ‘경제학회(經濟學會)’를 창립하였기 때문이다(馬西尼 1997 : 222-223).

이때의 ‘경제’를 馬西尼(1997 : 222)는 ‘일본어에서 나온 원어한자차사(來自日語的原語漢字借詞)’로 보고 있으며, Liu(1995 : 302)는 ‘돌아온 문자차용(文字借用, return graphic loan)’으로 정의하고 있다. 곧 현대중국어의 ‘경제’는 의미와 더불어 어형까지도 모두 일본어에서 차용된 결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경제’

는 본래 중국의 전통적 어형이기 때문에, 그 어형까지를 차용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용이 있었다면 의미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은 것이 국어에 나타나는 ‘경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대로 이 말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국어에 나타나지만, 조선의 한 지식인은 이 말을 일찍이 일본에서 들은 일도 있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간 이현영은 동경에서 당시 일본 제일의 선각자요 계몽학자인 동시에 영학자(英學者)였던 중촌정직(中村正直, 1832~1891)을 만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경제대도(經濟大道)’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이현영은 ‘경제’라는 말이 “문장 가운데 나온다”고 응대하고 있다(『日權集略』 問答錄, 訪中村正直於東京私第問答).

중촌정직은 ‘경제’라는 말을 적어도 중국의 전통적, 고전적 의미로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촌은 이미 1866년부터 1868년에 걸쳐 1년 정도 영국에 유학했을 뿐 아니라, 귀국 후에는 『西國立志編』(1871, Samuel Smile의 *Self Help*), 『自由之理』(1872, John Stuart Mill의 *On Liberty*)와 같은 번역서를 내기도 한 지식인이었다. 거기다가 그가 이현영과 대화를 나누었던 1881년 경에는 앞에서 본대로 신문명어로서의 ‘경제’라는 단어가 일본어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선각자적 지식인이었던 중촌 또한 이 말의 새로운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현영 또한 ‘경제’라는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경제가 “문장 가운데 나온다”는 그의 대답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가 ‘경제’의 새로운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현영은 중촌이 말하는 ‘경제’를 ‘경세제민’ 쪽으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결국 『큰사전』 ①에 나타나는 ‘경제’의 새로운 의미는 그 후의 개화 과정에서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의미의 개신을 입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로써 현대 국어에 나타나는 ‘경제’라는 단어의 어형만은 전통적 한자어에 속하며, 그 의미는 일본어에서 차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참 고 문 헌

* 전번 호까지 이미 제시한 문헌은 생략함.

[약호] Satow(1876)=E. M. Satow and Ishibashi Masataka(1876).
An English-Japanese Dictionary of the Spoken Language.
London:Trübner & Co., Ludgate Hill, Yokohama:Lane, Crowford
& Co.

[약호] Satow(1879)=E. M. Satow and Ishibashi Masataka(1879).
An English-Japanese Dictionary. Second Edition. London:
Trübner & Co., Ludgate Hill, Yokohama:Lane, Crowford &
Co., Kelly & Co., Kobe:F. Walsh & Co., Nagasaki:China &
Japan Trading Co., Shanghai:Kelly and Walsh.

[약호] Hepburn(1886)=米國 平文 著(1886). 『改正増補 和英英和 語林集成』.
東京:丸善齋社藏版. *A Japanese-English and English-Japanese
Dictionary* by J. C. Hepburn. Third Edition. Tōkyō:J. P. Maruya.
& Co., Limited, Yokohama:Kelly & Walsh, Limited, New
York:Steiger & Co., London:Trübner & Co.

佐藤亨(1986). 『幕末・明治初期語彙の研究』. 櫻楓社.

佐藤喜代治 편(1983). 『講座 日本語の語彙. 語誌 I, II, III』. 明治書院.

進藤咲子(1981). 『明治時代語の研究—語彙と文章』. 明治書院.

惣郷正明・飛田良文(1986). 『明治のことは辞典』. 東京堂出版.